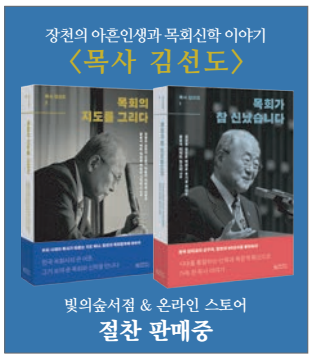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예배, 11월 21일(주일)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과 각 지성전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일년을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주신 절기는 아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종교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 지은 농작물을 수확해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다. 그들의 수확은 결코 풍작은 아니었을 것이다. 추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구원의 뜨거운 감사가 마음속에 넘쳤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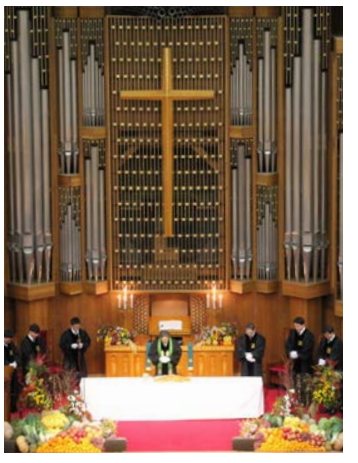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녹록치 않다. 코로나19의 긴 경기 불황에 서민들의 마음은 더욱 시리고 살림살이 또한 부담스럽다. 하지만 코로나로 빼앗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맞는 추수감사절이기에 그 어느 해보다 감사하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올 한해 우리 교회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어 감사함이 크다"며 넘치는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했다.

특별히 일상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도록 당부한다. 큰일을 경험하고 감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에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더욱 더 삶이 풍성해 질 것이라고 했다.

광림교회는 11월 21일(주일) 1부~4부까지 본당 대예배실에서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를 드리고 개인용 성찬키트를 통해 성찬식을 갖는다. 여선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추수감사절 저녁 음악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021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내용과 무게는 다르지만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무심히 스치고 지나쳤던 일상에서의 감사를 찾아보자.



"돌이켜보면, 올 한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깊이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올 초 실업인선교회 회장으로 임명받고 암담함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몸서리칠 정도였습니다. 회원들과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후원 장로(실업인선교회)

"한해를 되돌아보며, 삶에 많은 변화를 주시고 변화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뚜렷한 목표가 없어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저에게 호렙산 기도회를 결단하게 하셨고,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취업의 길에 도전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차준희 성도(청년부)

"올 한해 제 눈을 들어 선교라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목회 간호사 교육에 참석해 아프리카, 미국, 러시아 등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신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과 광림의료선교회를 연결해주셔서 10여 개국 선교지에 의약품 지원과 교회로 후원된 유치원복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도구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희순 권사(의료선교회)

"두 번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하나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갑상선암이 임파까지 전이되어 수술하였고, 뇌의 주요 부위가 출혈되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아무 이상없이 퇴원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루하루 더욱 귀하게 살겠습니다."

이면섭 권사(8교구)

이선아 기자

2 광림의 강단 빛으로 오신 예수님
3 광림 스토리 스데반선교회장 연합기도회
4 특집 창립68주년 기념 역사 사진전2
6 믿음의 현장 선교구 활동
7 다음세대 2021 성령한국 청년대회
8 특집 장천의 아흔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이사야 9장 2절)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 이스라엘이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이후에는 계속되는 이방민족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은 내일을 꿈꾸기보다는 오히려 소망을 잃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 치욕적인 패망을 경험하였던 터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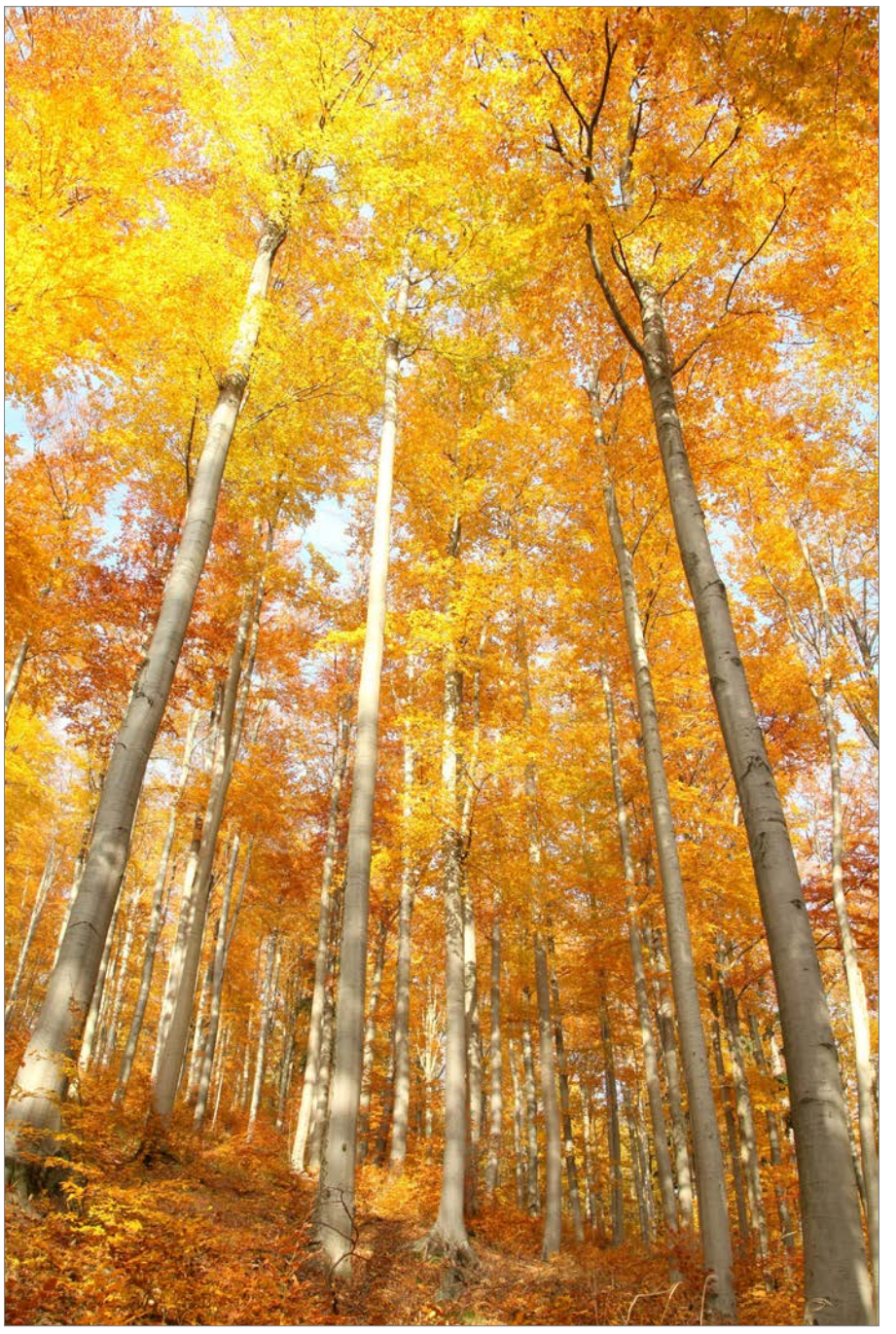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소망을 잃은 백성들을 향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마음에 다시금 빛을 비추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힘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메시아 곧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임하시며, 그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주님은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의 예수님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좋은 시력을 가졌다고 해도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건강하며 지식과 소유가 많을지라도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삶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을 잃고 어둡다고 이야기하며, 그 원인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한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며, 그 결과 감격과 감사도 없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과 열정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삶은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죄는 이러한 창조의 모습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졌고 생명의 소망까지 어두워진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웠던 삶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끄시고자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깊게 드리워져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 9장 1~7절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섶 같이 살라지리니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둘째, 우리의 주님은 기쁨의 빛으로 오십니다.

본문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의 민족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표현하며, 나중에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불리운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의 날과 같다'는 본문의 표현은 언제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시같은 존재였던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는 구원의 날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사시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13만의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렸던 사건을 예표로 삼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날에 두려움과 절망, 좌절로 어두워진 이 땅에 기쁨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무겁게 멘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기드온이 다 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좌절과 절망의 어두운 빛이 드리워져있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빛을 비춰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의 주님은 평강의 빛으로 오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하여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말씀합니다. 6절 후반부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하였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슥 9:10)

평안이 사라진 인생, 시기와 질투, 다툼이 반복되며 씨름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목해졌고 무너진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불신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개인과 개인의 나뉘었던 관계도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사는 삶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화가 임하며, 그 평화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소망과 기쁨,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남선교회〉 스데반선교회장 연합기도회

11월 7일, 창립기념주일 택시데이 행사 개최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는 10월 31일 주일 3부예배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실에서 스데반선교회장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스데반회장 및 센터위원 가족 등 총 67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포로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지만 다시금 돌아서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스데반이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의 공동체를 꿈꾸었던 만큼 광림교회 스데반선교회원도 예배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하였다.

곧이어 진행된 기도회 시간에는 '나라와 광림제단을 위해', '스데반 선교회와 남선교회 부흥을 위해',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을 위해'라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참석자들이 모두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선교회는 교회창립 68주년 기념주일인 11월 7일 주일에는 2,3,4부 예배 전후, 교회 정문입구와 사회봉사관 입구 그리고 현대아파트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데이 Taxi day〉 행사를 가졌다. 이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되도록 택시를 타고 오게 하면서 기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내릴 때에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단계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 이날 남선교회 회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교인들을 태운 택시가 들어오면 기사들에게 다가가 창립기념떡, 생수, 물티슈 등이 담긴 쇼핑백을 전해 주면서 "반갑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등의 따뜻한 인사말을 건넸다. 2013년부터 실시하여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지 성도들 중 일부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오늘 교회에서 택시데이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택시를 타고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기연 장로는 "택시 기사들의 입을 통한 복음 전도의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 행사는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교인을 태우지 않은 택시에게도 교회 근처를 지나면 모두 선물을 주고 있다. 기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면 광림교회의 소문도 좋아지고, 기사들이 승객들에게 대신 전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2021 광림교회학교 학부모 & 교사 세미나

자녀양육의 고민 성경 안에서 찾아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삿 13:12)"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부모의 자녀 양육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놓여져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 기치관과 거룩한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갈 수 있을까?

광림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들이 한 번 이상은 고민해 보았을 문제에 대해 나누고 성경적인 대안을 알아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14일부터 12월 5일 까지 4주 동안 매주일 오후 2시~4시까지 지소영 선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지소영 선교사는 방송작가이자 『살아가는 힘이 될거야』, 『153 가정예배』의 저자이며, 성교육과 가정예배 강사로도 활동중인 선교사이다.

세미나는 '성경적 성교육 / 중독의 시대와 자녀 교육/ 가정예배 세우기 / 부모 사명 세우기' 총 4가지의 주제를 다룬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와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적 대안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구성 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

지소영 선교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성공의 길로 안내하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하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다음세대'가 '다른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음 세대를 살릴 실제적인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모두 오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시다" 라며 많은 학부모들이 이번 세미나에 함께 하기를 권면했다.

장천아트홀에서 직접 강연을 들을 수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 할 수 있다. 교회학교에서 문자로 받은 사전예약링크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세미나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위해 강의 시간 동안 교회학교에서는 '일일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은 장천아트홀 4층, 취학 아동은 사회봉사관 3층에서 성경적인 활동을 하며 부모의 세미나 교육 시간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문의: 광림교회 교회학교(02-2015-1178)

박희윤 기자

포토 뉴스

창립 68주년 기념주일
11월 7일 창립 기념주일 2부예배에 김선도 감독님이 참석했다.

여선교회 느헤미야 기도회
11월 7일, 월례회와 느헤미야 기도회를 가졌다.

2021 수험생 기도회
11월 17일까지 웨슬리관 3층 고등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톨레 레게 전
창립68주년 및 추수감사절 전시회가 장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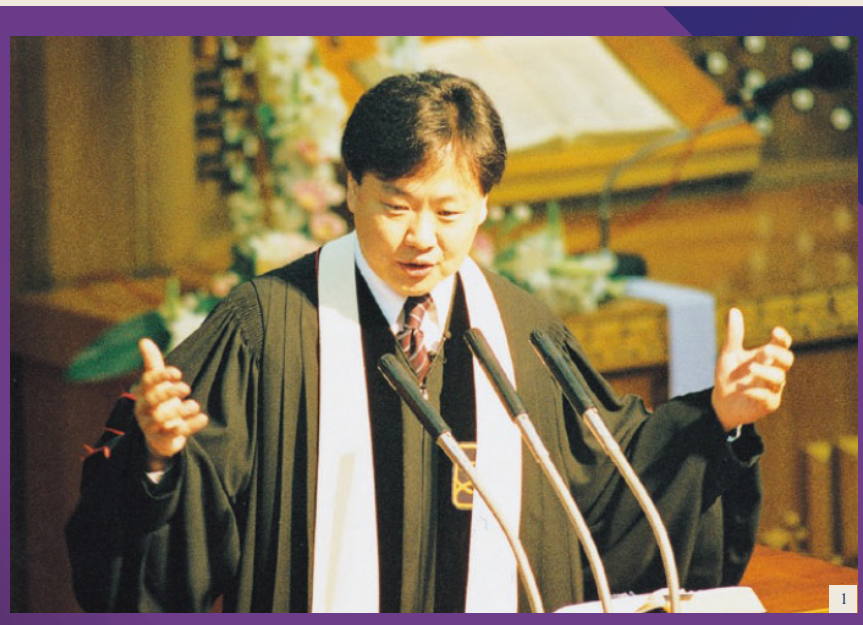
11/2-4	서울남연회 감리사협의회
11/5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운영위원회
11/7	창립68주년 기념주일예배
11/8-13	워싱턴 D.C 리더스 서밋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KWANGLIM CHURCH 68th 광림교회 창립 68주년 SINCE 1953

광림교회 창립 68주년기념 역사 사진전 – II

2001 ~ 2010


1

2

3

4

5

6

7

8

9

1 2001년 6대 김정석 담임목사 취임

2 2002년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개원

3 2003년 한마음걷기대회

4 2006년 광림남교회 새성전 봉헌

5 2009년 국제광림비전랜드 봉헌

6 2005년 광림수도원 에베소광장 봉헌

7 2007년 자이툰부대 방문

8 2010년 사랑부제주도올레길 순례

9 2010년 국제기독청년전도대회 개최

1

2

3

4

5

6

7

8

9

10

1 2013년 광림사회봉사관 봉헌

2 2013년 성령한국 청년대회

3 2012년 슈박스 나눔

4 2018년 잠비아 선교

5 2012년 논산 진중세례

6 2021년 광림 선한 나눔 운동

7 2017년 광림서교회 봉헌

8 2018년 광림북교회 봉헌

9 2019년 광림수도원 대성전 봉헌

10 2020년 서울남연회 16대 감독취임

2011 ~ 2021

8선교구

나는 하나님의 배우입니다

국민배우로 널리 사랑받는 김병기 권사(23교구)는 지난 10월 21일 '2021 월드스타연예대상'에서 드라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월드스타연예대상은 국내외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쳐온 문화, 연예, 예술인들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예술 시상식이다.

김병기 권사는 시상식에서 "너무나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연기자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상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했다.

1969년부터 52년 동안 연기의 외길을 걸어온 김병기 권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우'라는 말이다. 배우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칭송받고 싶은 것이 그의 진정한 소망이다. 또한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후배들에게 본이 되며 존재감 있는 배우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권사는 촬영이 늦게 끝나 피곤한 날에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 10년째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배우로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장천 울림' 동영상에서 김선도 감독님의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는 내레이션을 직접 맡기도 했으며 바쁜 와중에도 선교구 일일기도회, 총력전도 등 여러 교회 행사에도 앞장서서 열정을 갖고 참석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광림교회를 섬기면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셔서 행복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말씀이 곧 자신의 고백이 되길 간구하고 있다. 배우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는 김 권사의 한마디에는 믿음과 연륜이 넘쳐 흘렀다.

유병권 기자

4선교구

〈잠비아 우물 봉헌을 위한 걷기대회〉

지난 10월 23일(토) 4선교구는 '걷기'라는 재미와 '선교'라는 의미를 몸과 마음에 새기며 〈잠비아 우물 봉헌을 위한 걷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목회선교지원실을 통해 선교할 수 있는 곳을 추천받았고, 선교구의 교역자, 연합회, 교구임원, 장로님들은 잠비아 우물 파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우물 하나를 파는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몇 개의 우물을 팔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와는 달리 한 권사님 가정에서 우물 하나를 앞서 봉헌하시며 4선교구의 이름으로 잠비아에 우물 파는 헌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속회에서 하나, 선교회에서 하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 등 하나님은 일찍부터 저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당일 대회는 자유롭게 한강둔치(잠원지구)를 걷고 다시 교회에 모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복이 아닌, 가벼운 옷차림으로 모인 그 자리는 평소와는 다른 활기를 띠었습니다. 담당목사인 저는 요 4:13~14절을 통해 '생명의 우물을 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월드비전 이사로 잠비아에 다녀오신 담임목사님의 현지 영상을 보며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인 금액이 23,045,000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저희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정용식 목사(4선교구)

10선교구

'간증과 찬양, 친교로 새신자 초대'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10선교구는 지난 10월 22일(금) 광림서교회에서 '복음전도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작사가 김태희 집사(28교구)의 간증과 CCM가수 여니엘을 초청하여 간증과 찬양을 통해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한 달간 '관계전도'에 집중하여 먼저 임원들이 전도대상자를 3명 이상 작정하고 10월 12일과 19일 관계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회를 2주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2일(금) '복음전도축제'로 전도대상자들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구 성도님들과 교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복음전도축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55명의 10선교구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태희 집사는 과거 공황장애와 강박증, 우울증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모든 마음의 병으로부터 회복되었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고백을 담아 작업한 곡을 CCM가수 여니엘 자매가 찬양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선교구는 계속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벧전 3:15)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김우진 목사(10선교구)

광림남교회

광림의 역사 한 눈에 〈예수와 역사관〉

광림남교회는 2006년 지금의 동백으로 이전하고 경기 남부 지역과 용인에서 2천 명의 예배자를 꿈꾸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에게 광림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바르게 알리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남교회 임원들과 본당 목회선교지원실의 협조로 광림남교회 역사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예수와 카페를 보수하기로 계획했지만, 휴식공간과 역사관이라는 두 가지를 하나로 접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되었고 한 달간의 회의와 공사 등을 통해 마침내 〈예수와 역사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오픈하는 10월 31일 주일 오전, 이곳을 찾은 많은 성도들은 지나왔던 광림교회 역사를 보며 원로목사이신 김선도 감독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역사'에 대해 감격했습니다. 또 청년과 학생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선교지를 섬기고 있음'을 놀라워하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님은 개관식 축사에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비범한 일을 이루게 하셨다. 광림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한눈에 보게 되었다"며 수고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증거가 광림교회이고 우리 광림남교회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유용찬 목사(광림남교회)

2021 성령한국청년대회
The Holy Spirit Movement

GOD FLEX FESTIVAL 시즌 2

밤 하늘 별처럼 반짝이는 청년들을 위한 청춘페스티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2021. 11. 19. 19:00 광림교회

갓플렉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자'는 뜻입니다.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 X 갓플렉스 시즌 2'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멀어진 청년들을 초청해 좌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북돋워 주고, 믿음의 후계로 키우고자 합니다.

1부 예배

- 찬양 : Plate Worship
- 말씀 : 김정석 담임목사 (광림교회)

2부 토크콘서트

- 박　위 (온라인콘텐츠 창작자)
-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
- 패널 토크콘서트 - 사회 : 정선희

3부 소향 콘서트

김정석 담임목사
광림교회

박 위
온라인콘텐츠 창작자

존 리 대표
메리츠자산운용

손주은 회장
메가스터디

가수 소향

방송인 정선희

플레이트워십

대성그룹 kt THE E·LAND 서울예술대학교 SEOUL INSTITUTE OF THE ARTS 한동대학교 광림교회 가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CHRISTIAN LEADERS FORUM 국민일보

김선도 감독의 아흔 인생과 목회신학 이야기 '장천 울림'

17 〈목사 김선도〉를 마무리 하며

김선도 목사의 아흔 인생과 목회 역사

〈목사 김선도〉는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과 복음적 확신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하나님을 따라 걸어온 김선도 목사의 아흔 인생과 목회 역사를 담아냈다.

일평생 닮고 싶어 했던 존 웨슬리와 같이 철저하게 경건의 사람, 비전의 사람, 전인적인 성화의 사람으로 살아내려 했다.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했으며,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맡겨진 목회 현장을 지켰다. 간절한 기도에 뿌리를 둔 영성으로 성도들에게 전인적 치유와 위로, 영혼을 치유하며 비전에 도전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었다. 전쟁 중에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사명자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성실하게 실천했다. 기도자, 사명자로 살아온 그의 영성은 세계로 뻗어 나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많은 목회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황웅식 목사의 '목사 김선도' 머리글 중에서)

목회가 참 신났습니다

아흔 인생, 하나님 가까이에서 걷는 김선도 목사를 후배 목사들과 가족들은 이렇게 그렸다.

김영헌 목사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 젊은 군목 시절 김선도 목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서술하며, 직접 경험한 증언들과 전인적 사역의 본을 보여 주었다고 했다.

유기성 목사는 목회 인생을 기도의 영성으로 채운 김선도 목사는 여덟 가지 영성으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시대를 이끌며 광림교회로 그 열매를 맺었다고 했다.

'나의 스승, 나의 영원한 목회 임상학 교수'로 소개한 최이우 목사는 광림교회 5대 전통으로 이어지는 목회철학과 함께 삶의 본보기가 되는 목회자의 태도를 배웠다고 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가 있었다. 광림수도원 기도공원을 산책하며 김선도 목사와 나눴던 대화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며 영성의 값진 보물이 되었다고 했다.

목회의 지도를 그리다

사명과 헌신으로 꽃을 피우는 김정석 담임목사는 목회자의 본보기가 되며 삶이 곧 목회인 전임자이자 아버지 김선도 목사를 바라봄으로 새로움을 만들어가고 있다. 적극적인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동찬 목사는 통합적 목회 리더십으로 교회 성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김선도 목사를 일생의 '멘토'로 삼아 삶의 과정을 통한 신앙적 특징과 목회 리더십을 배웠다.

권병훈 목사는 김선도 목사를 교회 경영자로서 분명한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어 사역하며 미래 목회를 위한 전략을 세워 선교와 섬김을 위한 성장을 추구했다고 했다.

서창원 목사는 장천 김선도 목사의 신학과 교회론, 성장론으로 교회를 역사와 사회 성장에 자리 잡은 신앙공동체라고 했다. 또 광림교회 5대 전통으로 장천의 목회철학을 밝혔다.

김홍기 교수는 구원의 확신과 성화적 영성으로 충만한 김선도 목사의 설교를 선행적 은총과 은총의 낙관주의로 가득하다고 했다. 긍정적인 신앙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며 사회적 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도 목사를 진정한 웨슬리안 설교자라고 했다.

레슬리 그리피스 목사는 영국 웨슬리 채플에서 처음 만난 이후 글로벌 리더십으로 '세계는 나의 교구'로 삼은 김선도 목사를 복음적 견해를 나누고 실천하는 벗이자 스승이라고 했고, 부활의 교회 아담 헤밀턴 목사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겸손과 긍정의 힘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다음세대에 영감을 줄 인물이라 확신하고 교회 스테인드글라스에 새겼다고 했다.

김정운 교수는 목사 아들로 산다는 것의 고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고 싶은 아버지 김선도 목사를 그렸다. 이창우 장로는 의사 김선도, 목사 김선도를 힐러로 그리며 치유의 목회를 따라 의료 선교를 하며 그 정신과 영성으로 새 힘을 얻는다고 고백했다.

〈목사 김선도〉 연재를 마무리하며 김선도 감독님의 목회 동역자인 박관순 사모를 만나 순종과 사명의 목회 인생을 들어 보았다.

광림교회 68년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한 박관순 사모는 김선도 감독님을 '번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희생의 사람'이라며 "내 신앙의 스승은 김선도 감독님이며, 고난 중에도 모범된 스승이고, 나는 그의 수제자입니다. 성전 건축, 목회 활동의 러닝 메이트이며 파트너입니다"라고 했다. 박관순 사모는 성전 건축, 부흥의 역사를 전하며 온전한 믿음생활을 권면했다.

광림교회 창립 68년을 맞아 성도들에게 전할 성전 건축의 역사는?

"김선도 감독님의 처음 비전은 군목으로 장군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공군사관학교 군목으로 취임하며 대방동 후생 주택에 살던 어느 날, 광림교회 교인들이 와서 이삿짐을 실어 나르며 부임한 광림교회는 18년이 지나도 헌당을 못한 교회였다. 대방동 주택을 팔아 모두 교회에 헌금 한 후 20년 만에 헌당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일군 그 헌신의 텃밭에서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인들의 영적 부흥이었다. 성령의 바람은 전도 운동으로 이어졌고, 씨 뿌리는 수고는 교회 부흥으로 결실을 맺으며 교회 이전과 성전 건축의 비전으로 이어졌다."

"광림교회 성전건축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적 환경과 닮아있었다. 감독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 '지도자의 위기관리'를 목회에 적용했다. 1978년 1월 첫 번째 20일 금식기도를 한 후 지금의 광림교회 터를 정했고, 강남으로 이전하는 날 법궤를 맨 장로님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지금의 한남대교를 건너는 모습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같았다. 교회 건축은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1979년 12월 입당 예배 전 우리는 다시 20 일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금식기도를 하며 어려움을 이겨냈다. 우리 가정은 성전 건축의 3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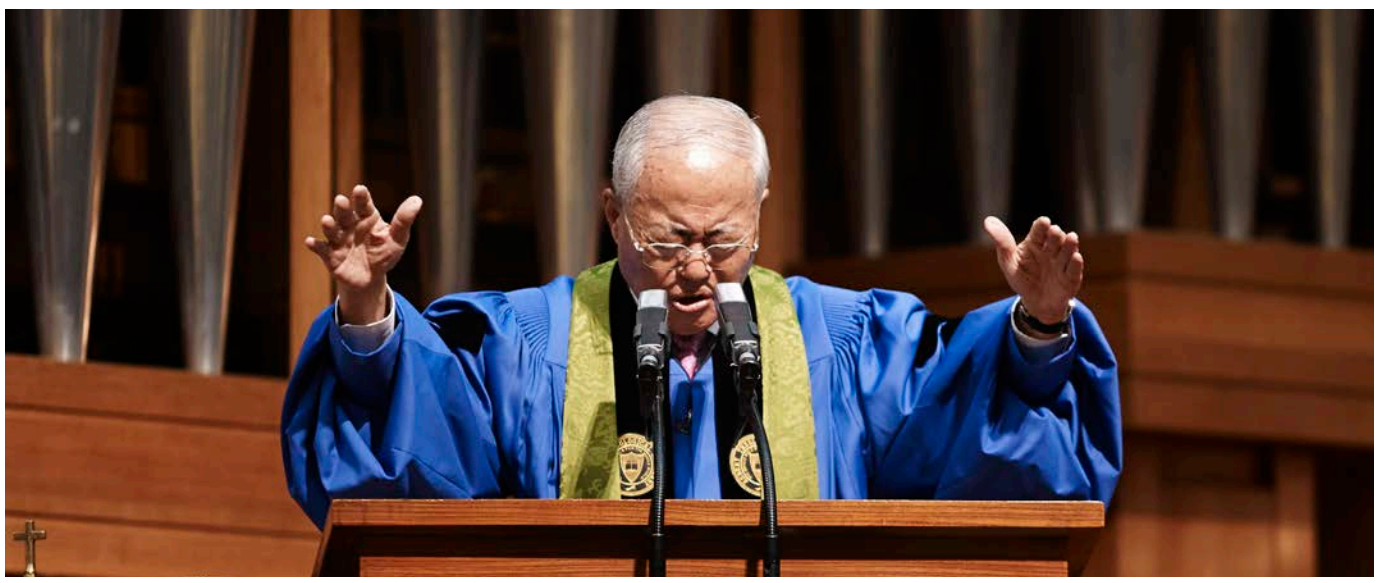
광림교회의 선한 영향력과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은 무엇인지요?

"감독님은 성도들을 평신도지도자로 훈련시키며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교회를 부흥시켰다. 나는 매주 5~6 개 속회를 인도하며 새신자 심방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삶에 적용되도록 했다. 실력 있는 평신도 속회지도자들을 훈련시켜 파송하자 속회는 점점 부흥했고, 선교회를 통해 새로운 비전들을 가지게 되었다. 1984년 시작한 트리니티 성경공부는 성도들의 내적 성숙을 이루었고, 1989년부터 호렙산기도회를 통해 체험적 신앙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해외 선교기도 중 "흘러가는 물에 빵 한 조각을 던지라"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환상을 보여 주시며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 김선도 감독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며 광림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세계 곳곳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은?

"위기의 시대일수록 광림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생활은 우리를 세상과 가정에서 명예롭게 살게 하신다. 참고 인내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특권을 믿고,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려야 축복을 받는다. 보이는 성전과 내 마음의 성전을 통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값없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란다."



이상희 기자

편집인 정존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재현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